



보도 일시	즉시	배포 일시	2022. 9. 21.(수) 16:00(총 3매)
담당 부서	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 조경모 (033-650-0420)
		담당자	주무관 김희원 (033-650-0424)

기후변화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하여 대응한다

- 「기후위기시대,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원포럼」 개최 -

- 강원지방기상청 · 가톨릭관동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-

-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(단장 강신수)은 9월 21일(수), 강릉(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)에서 「기후위기시대,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원포럼」을 공동 개최했다.
- 이번 포럼은 산·학·연·관 17개 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와 민간 기상사업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, 민간 분야(기상사업자, 협력업체)의 기술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을 토의하였다.
 - 주요 내용으로 △기상관측 그리고 드론(주식회사 솔더), △강원 지역적 기상·기후 현안 및 도시민 안전을 위한 방안 제시(주식회사 월드텍), △동해안 해양생물의 현황(바다생태리서치), △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공공데이터 활용 전략(주식회사 이오), △드론 활용 대기 측정을 통한 기후변화 대비(주식회사 ARX), △해양레저 기상서비스 사례 연구(주식회사 동녘) 등이 발표되었다.
- 강원지방기상청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※ 참여기관: 강원지방기상청,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, 강릉과학산업진흥원, 강릉시, 강릉 원주대학교,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, 강원ICT융합연구원, 강원연구원, 강원창조경제 혁신센터, 강원테크노파크, 동부지방산림청, 동해수산연구소, 한국관광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기상산업기술원, 한국에너지공단, 한라대학교

- 특히,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과 가톨릭관동대학교(총장 김덕현)는 포럼에 앞서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.
- 협약의 주요 내용은 △기상기후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술 및 정보 교류 협력, △지역 전략산업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지원, △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분야 강원도 미래 인재 발굴 지원, △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.
- 박훈 강원지방기상청장은 “기후변화에 대해 각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본 포럼의 취지가 뜻깊으며, 특히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포럼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” 라고 말했다.
- 붙임 1. 「기후위기시대,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원포럼」 사진
2. 강원지방기상청-가톨릭관동대학교 업무협약식 사진

붙임 1

「기후위기시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강원포럼」 사진



붙임 2

강원지방기상청-가톨릭관동대학교 업무협약식 사진

